



강북구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시행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구의회 홈페이지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을 구축해 3월 9일 개최 예정인 제232회 임시회부터 의회 회의영상을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그 동안 직접 의회에 방문하여 방청하거나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녹화된 영상으로 회의 장면을 볼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회 홈페이지(council.gangbuk.go.kr) 및 모바일로 생생한 회의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강북구의회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과정을 구민들이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생방송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강북구민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보다 폭넓은 계층이 구정에 참여하게 되어 의회와 의정활동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제231회 임시회 폐회

강북구의회(의장 이백균)는 2월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된 제231회 새해 첫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에서는 1월 31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월 3일부터 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0년도 구정 업무보고, 각종 안건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진 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7기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계획 1차년도(2019년) 시행결과 및 2차년도(2020년) 시행계획(안)」 보고 등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분승 의원은 ‘강북구 도시공원 활용 건강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구민, 아동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시행’을 제기했고, 조운섭 의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강북구 대책 마련’을 주장했으며, 최미경 의원은 ‘동별 신년인사회는 진정 주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발언하는 것을 끝으로 제231회 새해 첫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강북구의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책 보고회 통해 감염 예방책 마련 앞장서

지난 2월 3일 강북구의회 3층 의원휴게실에서 강북구보건소장, 보건소 의약과장과 함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건소장은 “강북구보건소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고, 서울시 예산 1억 원을 받아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구입하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 보급 중이며, 포스터와 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구민 대응책을 적극 홍보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강북구의원과 강북구보건소 집행부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됐다. 특히 의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방법에 대한 구민 문자알림서비스 ▲다중이용시설 손소독제와 마스크 신속배부 ▲지하철역 손소독제 비치 ▲임산부 집중 예방관리 방안 ▲지역아동센터 등 저소득 취약계층 관리 ▲자가 격리자 및 능동감시대상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강북구 재난안전관리기금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회를 마치며 이백균 의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전국가적 위기상태인 만큼, 보건소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강북구민들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바로 병원으로 가지 말고, 강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901-7704~7706) 또는 선별진료소(☎901-7686, 901-7689)로 전화하여 조치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강조했다.

